

새로운 경제시스템 창출을 위한

경제주평

Weekly Economic Review

-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목 차

■ 국내 산업 공동화, 어디까지 왔나?

Executive Summary	i
1.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 하락세 지속	1
2. 국내 산업 공동화 평가 - 제조업 중심	2
3. 시사점	8

본 보고서에 있는 내용을 인용 또는 전재하시기 위해서는 본 연구원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보고서 내용에 대한 문의는 아래와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괄 : 이 부 형 이 사 대 우 (2072-6306, leebuh@hri.co.kr)

Executive Summary

< 요 약 >

■ 지속되고 있는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

국내 제조업의 경우, GDP 대비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 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GDP 대비 비중은 1960년대 5.9%에서 2010년대 들어 28.5% 수준으로 크게 높아진 반면, 부가가치 증가율은 1970년대 18.0%까지 상승한 후 최근에는 5.2% 수준까지 둔화되었다. 이로 인해 같은 경제 성장 기여도는 3.5%p에서 1.4%p로 2.1%p 하락하였다. 특히, 향후에는 산업 구조조정 등의 진전으로 제조업 부문의 성장 기여도가 더 악화될 우려도 상존한다. 이에 본고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실태를 살펴본 후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국내 산업 공동화 현황 평가

국내 제조업 공동화 현상을 살펴보기 위해 제조업 활력(성장성, 수익성, 투자), 제조업 해외 의존도(투자, 생산, 교역), 제조업 산업연관효과(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 유발효과 및 수입 의존도) 등 3개 부문에 대해 추이를 살펴 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조업 활력) 제조업 성장성을 나타내는 총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증가세 모두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축소세가 지속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과 총출하액 증가율은 2012년 1%대 전후 수준으로 하락한 뒤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 수준에 머물고 있다. 부가가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는데, 2012년 0.1%, 2013년 -0.3%, 2014년 1.1%로 부진세가 지속되고 있다. 한편,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14년 32.5%로 2000년 38.4%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생산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에서 67.5%로 상승했다. **한편, 제조업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되는 등 수익성도 악화되고 있다.**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에서 2014년 4.2%로 약 2.5%p 하락했고, 동기간 매출액 순이익률도 5.7%에서 3.3%로 하락했다. **또, 제조업 투자도 유형자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하는 등 악화되고 있다.** 국내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은 2010년 11.2% 이후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2014년에는 3.2%로 2010년 대비 약 8.0%p 하락하였다.

(제조업 해외 의존도)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제조업의 해외생산 의존도도 빠르게 상승하는 등 제조업 해외 의존도도 높아지고 있다. 해외직접투자 대비 제조업 비중은 신규법인수 기준으로는 2006년 2,260개사에서 최근 1,000개사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신고금액 기준으로도 1990년대 60% 중반대에서 2010년대 들어 30% 후

반대로 축소되었다. 다만, 투자 규모는 2013년 110.7억 달러 이후 감소세로 전환되었으나, 최근에도 90억 달러를 상회하는 등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해외직접투자가 진전되면서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는 2009년 1,574.9억 달러에서 2014년 3,711억 달러로 2.4배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국내 제조업 매출 규모는 1.7배 증가한데 그쳤다. 제조업 부문의 해외 생산 의존도는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빠르게 상승했는데, 이는 우리나라에 앞서 산업 공동화 현상을 겪고 있는 일본의 2011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이다. 한편, 국내 임가공 무역이 총교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7.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에 달한데 반해,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임가공무역 수지 흑자 비중은 2011년 73.0%에서 2015년 19.7%로 대폭 축소되었다. 이처럼 해외 생산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무역 관련 서비스, 특히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가 2010년대 들어 110억 달러대의 적자를 보였고, 가공서비스 수지도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제조업 산업연관효과)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는 전반적으로 약화되고 있는 가운데 중간재 수요 약화로 수입유발 효과가 커지고 있다. 제조업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 2.092에서 2013년 2.036으로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27에서 2013년 0.534로 하락하였다.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원당 20.3명에서 동 2013년 8.6명으로 급감했다. 더욱이,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도 2000년 70.6%에서 2013년 66.1%로 하락한 반면 수입유발계수는 동기간 0.349에서 0.457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상 살펴 본 결과 국내 제조업의 경우, 산업 활력은 물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되는 등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시사점

향후 국내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한 단기 대응책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확립, 이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세제나 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한 후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촉진, 기존 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등을 꾀해야 한다. **넷째**, 산업 공동화 진전에 따르는 관련 대외 거래, 특히 서비스 부문의 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특히, 이는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제조업의 취업유발효과를 제조업과 연관있는 고부가 서비스업 부문의 고용 창출력을 높여 간접적으로 제조업 취업유발효과 약화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섯째**,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과 같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해서는 범국민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1. 제조업의 성장 기여도 하락세 지속

○ 국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상승한 반면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경제성장 기여도가 빠르게 하락하는 등 제조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 공동화 진전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국내 제조업의 對 GDP 비중 확대

· 국내 제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5.9%에서 최근(2010~2015년, 이하 동일)에는 28.5% 수준으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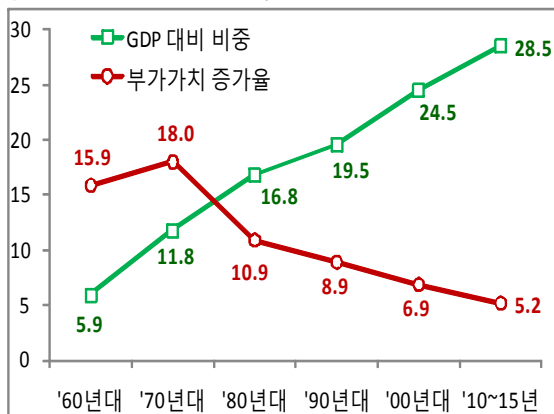
- 반면에 경제성장 기여도는 빠르게 하락

· 국내 제조업의 부가가치(GDP) 증가율은 1970년대 18.0%까지 상승한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면서 최근에는 5.2% 수준까지 둔화
· 제조업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같은 기간 3.5%p에서 1.4%p로 약 2.1%p 하락

○ 이에 본고에서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국내 산업 공동화 실태를 살펴본 후 국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특히, 산업 구조조정 등의 진전으로 향후 산업 공동화가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응이 시급한 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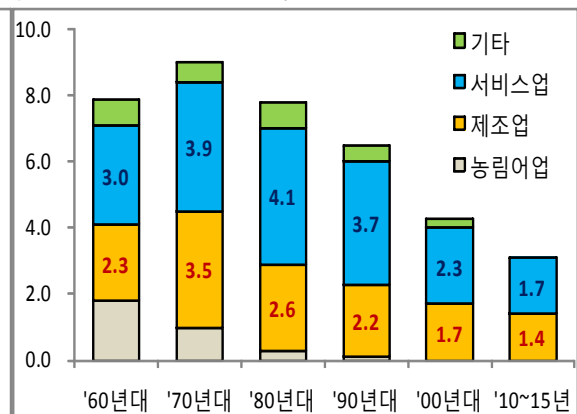
<제조업의 GDP 비중 및 부가가치 증가율 추이>
(원계열 실질 기준,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1) 부가가치는 GDP를 말함.
2) 각 구간 단순평균임.

<산업별 성장기여도 추이>
(원계열 실질 기준, %p)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주 1) 기타는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과 건설업의 합임.
2) 각 구간 단순평균임.

2. 국내 산업 공동화 평가 - 제조업 중심

① 분석 개요

- 국내 산업의 활력과 산업연관효과의 변화 등을 제조업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산업 공동화 수준을 평가

- 산업 공동화의 개념

- 고바야시 히데오(小林英夫)에 따르면 산업 공동화(hollowing-out)란 국제 경쟁력을 상실한 산업이나 기업이 소멸하거나 해외로 이전함으로써 국내 기반이 없어질 뿐 아니라 이를 대신하는 신산업의 창출이나 산업고도화가 일어나지 않고 산업구조에 공백이 생기는 현상을 말함¹⁾

- 주요 분석 내용

- 제조업 활력 : 성장성, 수익성, 투자 관련 지표
- 제조업 해외 의존도 : 해외직접투자, 해외 생산 비중, 임가공무역
- 산업연관효과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수입유발 효과 및 수입 의존도

< 산업 공동화 평가 내용 >

구분	세부 정책
1. 제조업 활력	① 성장성 : 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등의 증가율 ② 수익성 :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③ 투자 : 유형자산 증가율
2. 제조업 해외 의존도	① 투자 : 해외직접투자 ② 생산 : 해외생산 비중 ③ 교역 : 임가공무역
3.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	①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효과 ② 수입유발 효과 및 수입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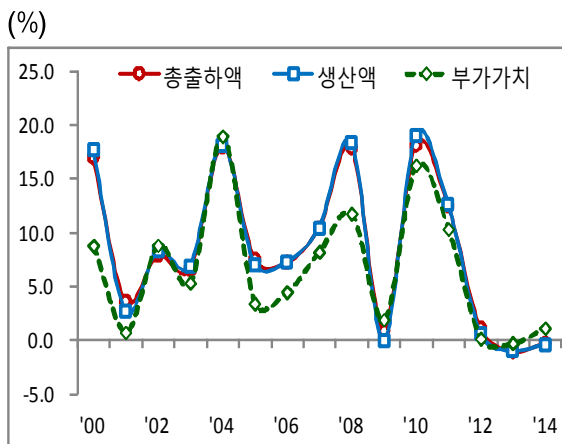
1) 200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산업 공동화 자체에 대한 찬반 논의가 활발했었는데, 이 논의에서 주의할 점은 산업 공동화 자체에 대한 논의보다는 산업의 활력과 연관효과의 변화 등에 따르는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 관련 논의는 小林英夫, 産業空洞化の克服—産業轉換期の日本とアジア, 中公親書, 2003년2월; 叶 芳和, 産業空洞化どこまで進むのか?—中国の挑戦・日本の課題, 日本評論社, 2003년12월; 松島大輔, 空洞化のウソー日本企業の現地化戦略, 講談社現代親書, 2012년 등 참조.

② 분석 결과

○ 제조업 활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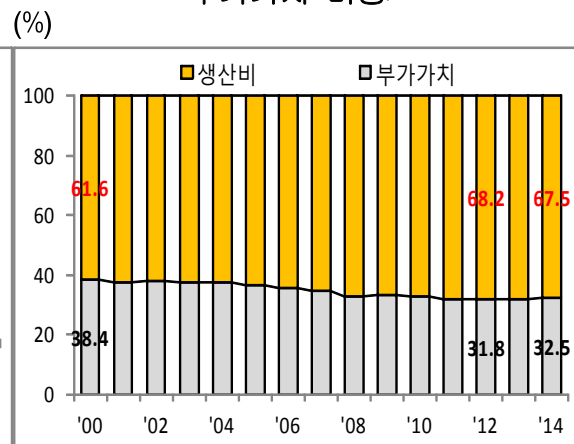
- 성장성 : 총출하액, 생산액, 부가가치 증가세가 둔화되는 가운데 전체 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 비중 축소세가 지속
 -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과 총출하액 증가율은 2012년에 1%대 전후 수준으로 하락한 뒤, 2013년부터는 마이너스 수준을 기록
 - 더욱이, 부가가치 증가세도 2011년 이후 크게 둔화되었는데, 2012년 0.1%, 2013년 -0.3%, 2014년 1.1%로 부진세가 지속
 - 한편, 국내 제조업의 생산액 대비 부가가치 비중은 2014년 32.5%로 2000년 38.4%에 비해 크게 축소된 반면 생산비 비중은 같은 기간 61.6%에서 67.5%로 상승

<제조업 성장성 관련 지표 증감률 추이>



자료 :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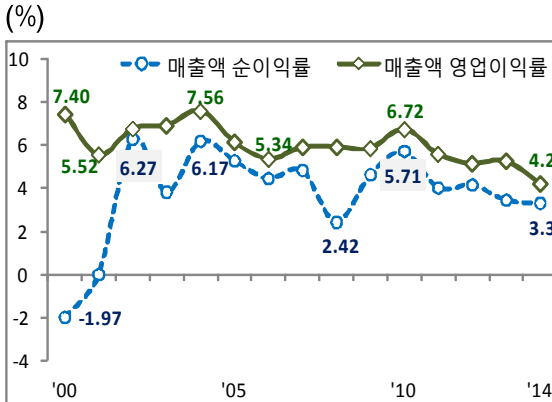
<제조업 생산액 대비 생산비 및 부가가치 비중>



자료 : 통계청.

- 수익성 : 매출액 순이익률 및 영업이익률 하락세가 지속
 - 제조업 매출액 영업이익률은 2010년 6.72%에서 2014년 4.21%로 약 2.5%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 동기간 매출액 순이익률도 5.71%에서 3.30%로 매출액 영업이익률 악화 수준과 유사한 정도로 하락
- 투자 :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이 빠르게 하락
 -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도 2010년 이후 하락세가 지속되었는데, 2010년 11.2%에서 2014년에는 3.2%로 약 8.0%p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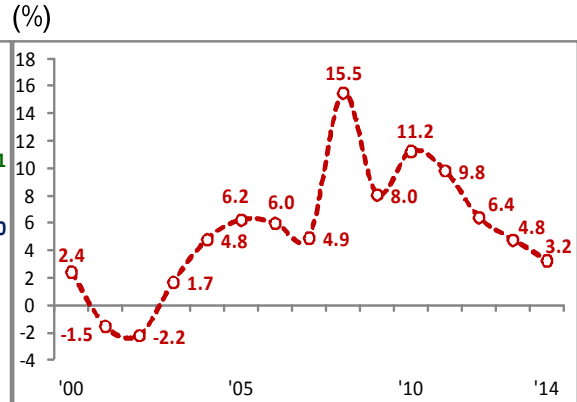
<제조업 수익성 관련 지표 추이>



자료 : 한국은행.

주 : 2009년부터는 전수조사에 의한 값으로 이전 데이터는 단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나 추세 비교를 위해 제시.

<제조업 유형자산 증가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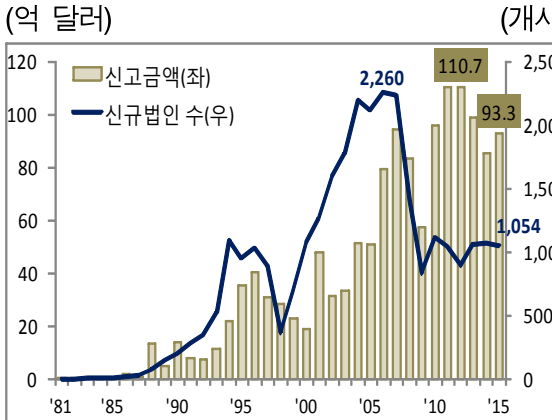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부터는 전수조사에 의한 값으로 이전 데이터는 단순 직접 비교가 불가능하나 추세 비교를 위해 제시.

○ 제조업 해외 의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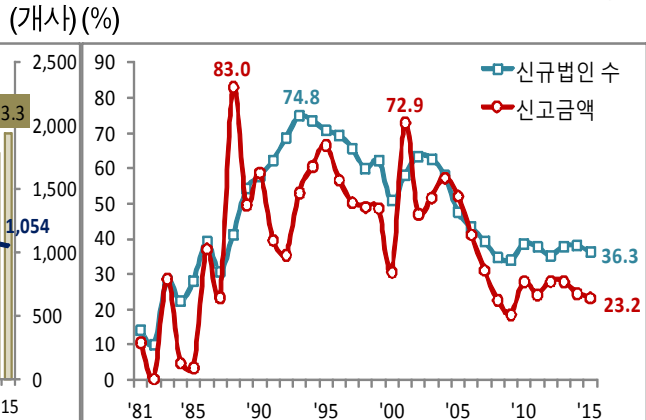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 대규모 해외직접투자가 지속되고 있으나, 해외직접투자에서 차지하는 제조업 위상은 점차 축소
 - 제조업 해외직접투자는 신규법인 수 기준으로는 2006년 2,260개사에서 최근 1,000개사 정도 수준으로 크게 축소
 - 규모로는 2013년 110.7억 달러 이후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최근에도 90억 달러대를 유지하는 등 대규모 해외직접투자는 지속
 - 전산업 해외투자 신규법인 수의 제조업 비중은 1990년대 66.5%에서 2010년 이후 평균 37.3%로, 신고금액 비중도 동기간 51.8%에서 25.9%로 대폭 축소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추이>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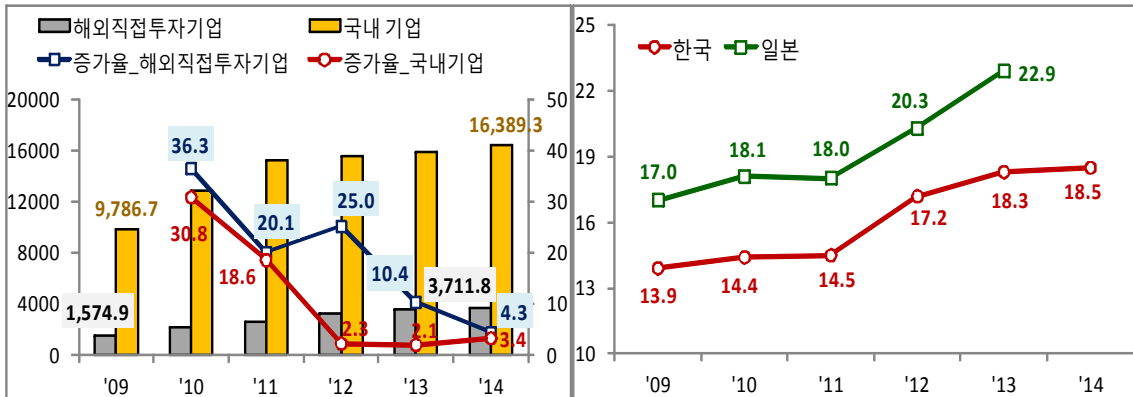
<전산업 해외직접투자 대비 제조업 비중>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현대경제연구원.

- 제조업 해외생산 의존도 : 제조업 부문의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 증가세가 국내 제조업체보다 빠른 가운데 해외생산 비중이 빠르게 상승)
 - 제조업 부문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매출 규모는 2009년 1,574.9억 달러에서 2014년 3,711.8억 달러로 2.4배 증가한데 반해 동기간 국내 제조업 매출 규모는 1.7배 증가한데 그침
 - 제조업 부문의 해외생산 의존도는 2009년 13.9%에서 2014년 18.5%로 빠르게 상승하였는데, 이는 2011년 일본(18.0%)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

<국내 및 해외직접투자 제조업 매출액> (억 달러) <한일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 비교> (개사)(억 달러) (%)



자료 : 한국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한국수출입은행, 經濟産業省, 현대경제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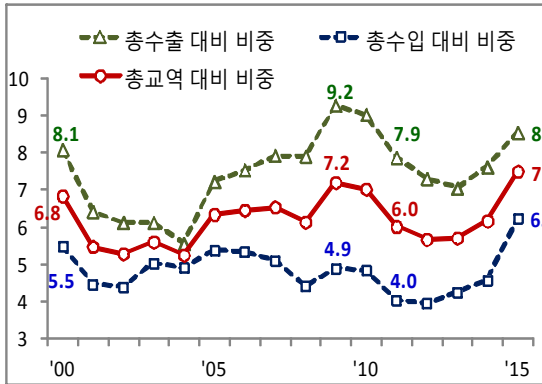
주 : 국내 기업의 매출액은 종가기준 원/달러 연평균 값을 이용해 환산. 주 : 제조업 해외생산 비중=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기업 매출액/(제조업 해외직접투자 기업 매출액+국내 제조업 매출액)*100.

- 임가공무역³⁾ : 임가공무역의 총무역 수지 기여도 하락
 - 국내 임가공무역의 총교역 대비 비중은 2015년 7.5%로 2000년 이후 최고 수준
 - 하지만, 최근 임가공 수출보다 수입 증가세가 빨라지면서 임가공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축소되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 무역수지 흑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1년 73.0%에서 2015년 19.7%로 대폭 축소

2) 제조업 해외생산 의존도 분석 기간은 해외직접투자 기업의 경영 데이터 일관성 유지를 위해 분석기간을 2009년 부터로 제한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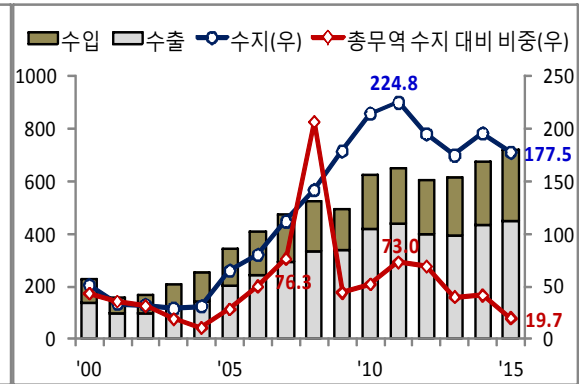
3) 임가공무역 수출은 위탁가공(국외가공)을 위한 원자재 수출, 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외국으로부터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 기타 일반업체가 수탁받아 가공 후 수출의 합이며, 임가공무역 수입은 위탁가공(국외가공) 후 수입, 수탁가공(국내가공)을 위한 수입(국내 외국인 투자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과 기타 일반 업체가 수탁가공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의 합)의 합임.

<임가공무역의 총수출입 대비 비중> (%)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임가공무역의 총무역 수지 대비 비중>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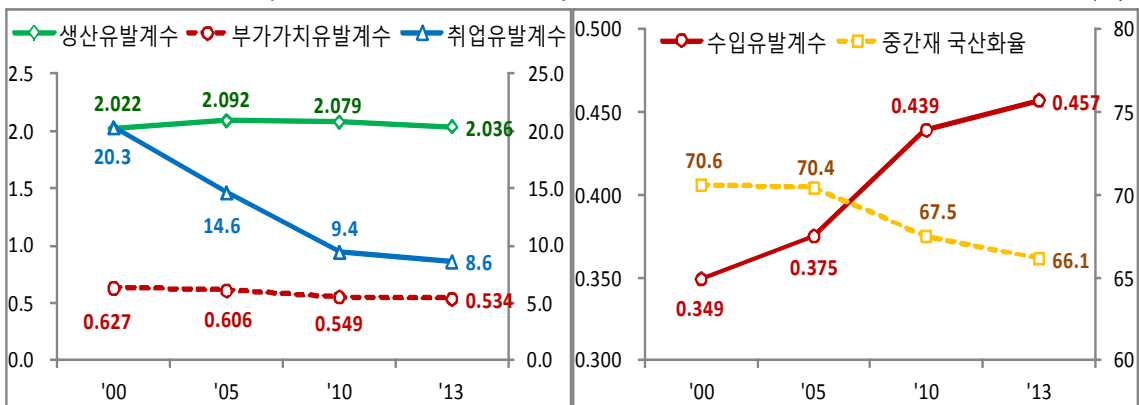
자료 : 한국무역협회, 현대경제연구원.

주 : 수출입은 임가공무역 기준임.

○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

- 생산 및 부가가치 유발 효과 약화 속 취업 유발 효과도 축소
 - 생산유발계수는 2005년 2.092에서 2013년 2.036으로 하락하였으며, 부가가치 유발계수는 2000년 0.627에서 2013년 0.534로 하락세가 지속
 - 취업유발계수도 2000년 10억 원당 20.3명에서 동 2013년 8.6명으로 급락
- 국내 중간재의 수요 약화로 수입유발계수 상승
 - 국내 제조업의 중간재 국산화율은 2000년 70.6%에서 2013년 66.1%로 하락
 - 이로 인해 국내 제조업의 수입유발계수는 동기간 0.349에서 0.457로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음

<제조업의 산업연관효과 및 중간재 국산화율 추이> (취업유발계수, 명/10억원)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주 : 2010년과 2013년 취업유발계수는 13개 제조업의 단순평균임.4)

<참고> 한국의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및 가공서비스 수지 추이

○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 국내 서비스수지는 2015년 157.1억 달러 적자로 2010년 142.4억 달러 적자 이후 최고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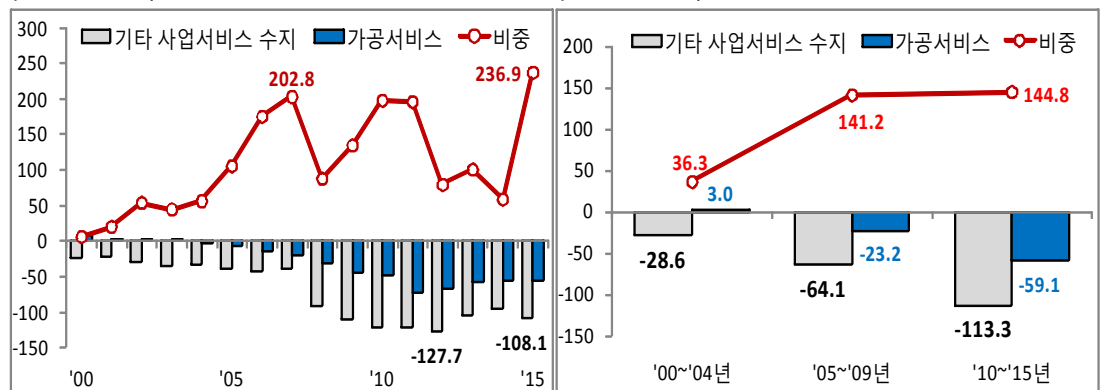
○ 대규모 서비스수지 적자 지속 현상은 해외직접투자 증가 등에 따르는 국내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으로 해외 생산 비중이 확대되면서 무역 관련 사업서비스인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와 가공서비스 수지의 적자 폭이 확대된 것이 큰 원인으로 작용

-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적자는 2000년대 초반 3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이었으나, 2010년대 들어 110억 달러대로 약 4배 가까이 증가
- 가공서비스 수지도 2000년대 초반 3억 달러 정도 흑자를 보였으나, 2010년대 들어 약 60억 달러에 달하는 적자로 전환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및 가공서비스 수지 추이> <구간별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 및 가공서비스 수지 추이>

(억 달러, %)

(억 달러, %)



자료 : 한국은행, 현대경제연구원.

자료 : 한국은행.

- 주 1) 비중은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와 가공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함.
- 주 2)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에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와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 수지 및 기술, 무역,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가 포함됨.

- 주 1) 각 구간별 단순 평균.
- 주 2) 비중은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와 가공서비스가 전체 서비스 수지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구간 단순 평균임.
- 주 3)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에는 연구개발 서비스 수지와 전문, 경영컨설팅서비스 수지 및 기술, 무역, 기타 사업서비스 수지가 포함됨.

4) 13개 제조업에는 음식료품/섬유 및 가죽제품/목재 및 종이, 인쇄/석탄 및 석유제품/화학제품/비금속광물제품/1차 금속제품/금속제품/기계 및 장비/전기 및 전자기기/정밀기기/운송장비/기타 제조업 제품 및 임가공이 포함되며, 취업유발계수는 이들 13개 산업의 취업유발계수에 대한 단순 평균임.

3. 시사점

- 국내 제조업을 중심으로 산업 공동화 실태를 살펴 본 결과 제조업 활력은 물론 해외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산업연관효과도 약화되는 등 산업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
 - 더욱이 향후 조선업을 비롯한 산업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국내 산업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될 우려가 커 국내 산업 활력 제고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책 마련이 시급
 - 우선, 산업 공동화 회피를 위한 단기 대응책에서 벗어나 산업구조의 고도화, 신성장 동력 육성 등을 포함하여 국내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높여 경제의 재도약을 이룰 수 있도록 중장기 산업발전비전을 확립, 이의 달성을 위한 지속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함
 - 기존 제조업 부문의 경우, 글로벌 경쟁의 심화는 물론 국제분업구조 및 국내 기업환경 변화 등에 따라 대내외 경쟁력 유지를 위한 구조조정 등의 적극적인 단기 대응이 필요함
 - 하지만, 이러한 노력이 산업 및 경제 규모의 축소로 이어져 국가 전체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도 상존해 있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정책 대안 마련이 필요
 - 특히, 구조조정 후 국내 제조업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제조 경쟁력 뿐 아니라 관련 서비스 경쟁력 제고와 신성장 동력 산업의 육성이 매우 중요함
 - 이를 위해서는 국내 산업이 처한 상황과 내재된 문제점, 경제·사회·산업 구조의 변화 등 다양한 현상과 문제점들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산업 정책 대안들을 마련하고 추진함으로써 국내 경제의 중장기 성장 기반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함
 - 다음으로, 세제나 고용, 노사관계 등에 관한 법·제도에 대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재검토한 후 산업과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부문에 대해서는 과감하고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특히, 국내 R&D 등 혁신기반 유지 및 확대, 우수 인재 확보 및 두뇌 유출 방지, 중소기업 인재 확보 및 활용, 해외 유망 기업 유치 관련 지원 제도 등에 관한 법·제도의 개선이 시급
- 또, 규제 완화는 물론 규제 방식의 전환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규제 합리화 노력의 지속을 통해 기업 투자 활성화, 신성장 동력 육성 촉진, 기존 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등을 꾀해야 함
 - 투자 활성화 관련 규제에 대해서는 중앙과 지방 간 규제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중앙과 지방 간 규제 관련 규제 재검토가 필요함
 - 또, 신성장 동력이나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신속하고 과감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사결정 후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부작용 예방 노력이 동반되어야 할 것임
- 한편, 산업 공동화 진전에 따르는 관련 대외 거래, 특히 서비스 부문의 수지 악화 방지를 위한 노력 또한 필요함
 - 국내 서비스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전문, 경영컨설팅 서비스나 기술, 무역 서비스 등 대외 교역 확대 및 국제분업체제 강화에 수반하여 나타나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국내 경쟁력 강화 대책 추진이 시급
 - 특히, 관련 업체들의 전문성 강화 및 인재 확보, 규모의 확대, 해외 진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 더욱이 이는 추세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제조업 취업유발 효과를 제조업과 연관이 있는 고부가 서비스 부문의 일자리 창출력을 높여 간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함
- 마지막으로, 노동시장과 노사관계 등과 같이 산업 경쟁력의 기반이 되는 영역이면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범국민 차원에서의 합의 도출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이부형 이 사 대 우 (02-2072-6306, Leebuh@hri.co.kr)